사앗사앗팀의

6월 이야기 ,
들어보실래요?

6월 일정

보아라
우리의 일정!

Sun	Mon	Tue	Wed	Thu	Fri	Sat
				4	5	6
				DHOBIGHAT	KAMATHIPURA DAY CARE CENTER PICNIC	JUHU YMCA Founders Day @International House
7	8	9	10	11	12	13
Weekly report	Meeting with Raphael	Holiday in Mumbai	Holiday in Mumbai with Rahul	Holiday in Mumbai	Holiday in Kerala Sachin's Birthday	Holiday in Kerala
14	15	16	17	18	19	20
Holiday in Kerala	Holiday in Kerala	Holiday in Goa	Holiday in Goa	Holiday in Goa Back to Andheri	Secretary Amul's Wedding celebration @Andheri east	Boys home
21	22	23	24	25	26	27
Weekly report Preparation for next week	Boys home DOHOBIGHAT	Boys home Hindi class	Boys home Whole day	Juhu Boys home	Juhu Boys home Team meeting	코디네이터 및 홈스테이 가족과 미팅 @나비 뭄바이
28	29	30	1	2	3	4
Weekly report	DHOBI GHAT	DHOBI GHAT	Amusement park @Essel world with Rahul & Manish	Juhu Boys home	Juhu Boys home	KAMATHIPURA DCC Boys home

까마티푸라 데이케어센터
따끈따끈한 6월 소식

까마티푸라 데이케어센터, 이야기 하나

5월 달 캠프, 350PPM 캠페인 등 빡빡한 일정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잠시 중단했던 까마티푸라 데이케어 센터에서의 활동을 6월 들어 다시 재개했다. 아이들과 함께 할 활동을 생각하다가 건강한 마음 만들기를 목표로 4월 달에 계획했던 식물 키우기를 떠올렸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5월 말350PPM 캠페인 때 사용하다 남은 흙과 비료, YMCA 숙소에서 틈틈이 모아두었던 다 쓴 페트병, 그리고 툴씨 씨앗을 준비해 까마티푸라 센터로 향했다. 재료들을 꺼내자 아이들이 하나 둘 관심을 보이며 모여들었고 그렇게 식물 키우기 활동을 시작했다. 페트병을 잘라서 아이들에게 주면 아이들 스스로가 흙과 비료도 집어넣고, 그 위에 조그마한 구멍을 만들어 씨앗도 뿌리고, 물도 주었다. 자신의 화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바닥에 흙도 흘리고, 씨앗이 잠겨버릴 만큼 물을 과다하게 주기도 했지만, 흙에 있는 벌레를 보며 좋아하는 아이들, 자신의 이름이 쓰여진 스티커를 화분에 붙이면서 해맑게 웃는 아이들, 씨앗에게 사랑해 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함을 느꼈다.

까마티푸라 데이케어센터 이야기 , 디퍽이랑 같이 들어보실래요?

까마티푸라 데이케어센터, 이야기 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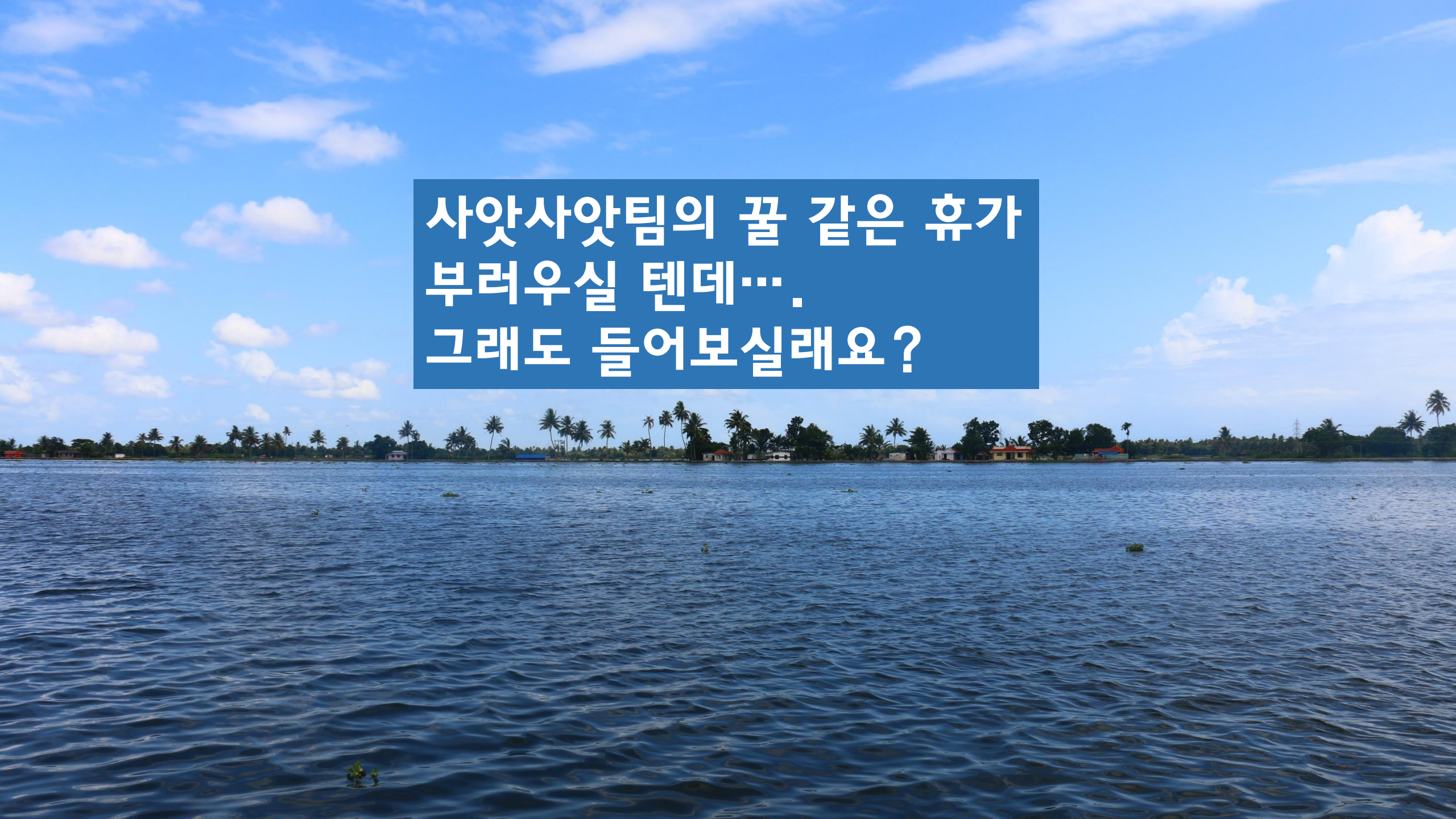
4월 달부터 조금씩 준비해오던 까마티푸라 데이케어 센터 아이들과의 소풍을 6월에 가게 되었다. 아이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소풍을 간다는 사실을 새로이 알게 되어, 맨 처음 이 소풍을 기획하게 되었던 이유(아이들이 까마티푸라 밖으로 소풍을 가본 적이 없다는 것)가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 소풍을 예정대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콜라바에 위치한 한 수족관이었다. 사실 아이들을 데려가고 싶었던 곳은 워터파크(수영장)였다. 하지만 예산 문제에 걸려 낮추고 낮춰 수족관으로 골랐는데, 수족관 평도 그다지 좋지 않았고, 수족관을 이미 갔다 와본 한 아이의 평 또한 부정적이어서 가기 전부터 매우 걱정이 되고 불안했다. 하지만 괜한 걱정이었다. 수족관 입구에서부터 아이들은 흥미를 보였고, 들어가고 나서 아이들의 시선은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로부터 떨어질 줄을 몰랐다. 두 번째로 간 곳은 수족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행잉가든 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아이들과 간식을 먹었고, 행잉가든 내 다양한 곳을 배경으로 다같이 사진도 찍었다. 까마티푸라 센터로 다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기르가움 쵸파티였는데, 모래 위에서 아이들과 함께 골라를 먹으며 파도 치는 해변을 바라보았다. 까마티푸라 센터에서 모처럼 나와 너도나도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며 진작에 데리고 갈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까마티푸라 데이케어센터 이야기 , 디퍽이랑 같이 들어보실래요?

까마티푸라 데이케어센터, 이야기 셋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은 시점에서 우리는 까마티푸라 데이케어 센터 아이들과 장기적인 활동을 한번 진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야기하다 나온 것이 바로 연극이었다. 연극 스토리로 준비한 것은 전래동화 중 하나인 흥부와 놀부였다. 이야기는 영어로 준비해갔고, 칸찬 선생님의 도움으로 아이들에게 힌디로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들려 줄 수 있었다. 모든 아이들이 관심을 보였고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들에게 연극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 이야기를 들려준 후 우리는 재미는 있었는지, 이 이야기를 연극으로 꾸며본다면 해볼 의사가 있는지 아이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다. 혹시나 아이들이 연극을 꺼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잠시 가졌었는데, 아이들은 의외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겠다고 말을 했고, 말을 끝내자마자 아이들은 역할을 나누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했다. 앞으로 연극에 필요한 의상과 도구를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까마티푸라 데이케어센터 이야기 , 디퍽이랑 같이 들어보실래요?


사앗사앗팀의 꿀 같은 휴가
부러우실 텐데….
그래도 들어보실래요?

#꿀 같은 휴가이야기, 하나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이사, 350PPM 캠페인, 중간평가도 모두 끝이 났다. 쉼 없이 달려온 'Saath Saath'팀에게 인도 사무국에서 휴가를 주었다. 그래서 이 휴가 기간을 모두가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들은 각자에게 날을 부여하여, 그 날의 담당이 원하는 활동을 하는 방법으로 휴가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각 개인마다 주로 하고 싶었던 것이 다 달랐다. 사친(승희)은 관광, 아자드(도원)는 휴식, 디파(나영)은 혼자 가는 여행, 다라(예현)는 수상가옥 체험을 하고 싶다고 했고 이에 맞게 계획을 수립했다.

우리들은 뭄바이에서 디파의 계획대로 팀원들 각자 떠나는 여행으로 휴가를 시작했다. 다라는 테쿰이라는 인도 친구와 함께 평소에 겉에서만 보고 그냥 지나쳐야 했던, 고등법원, 하지알리, 유대교회당, 안데리시장, 그리고 콜라바 지역 이곳 저곳을 관광했다. 테쿰이 관광을 무척이나 귀찮아해서 고생을 했다지만..!! 마지막으로 테쿰네 집을 방문하여 테쿰네 가족들도 만나고, 어머니가 해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고는 여지껏 먹었던 양고기 중 가장 맛있었다며 감탄했다.

아자드는 오전에 콜라바 지역을 돌며 게이트웨이오브인디아, 고등법원, 마린드라이브 등을 돌아다니다 카페에 들어가 밀린 일기를 썼다고 한다.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가 활동하는 까마티푸라에 있는 발와디(유치원) 아이들을 보기 위해 갔는데, 보고 싶던 아이(무려 세 달을 기다렸는데!)가 졸업을 해버려서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발와디 아이들을 만나지 못한 대신 평소에 함께 하는 D.C.C. 아이들과 오후 시간 내내 즐겁게 놀고, 아이스크림까지 함께 먹고 왔다지만 보고 싶던 발와디 아이를 보지 못했던 그 순간의 심정은 "엄청 슬펐다"고 한다.

요번엔 귀욤둥이 핸쯜이 들려줄꼬야, 사앗사앗팀의 휴가이야기!

#꿀 같은 휴가이야기, 하나

새벽 4시에 출발한 디파와 사친…..
과연 그들의 하루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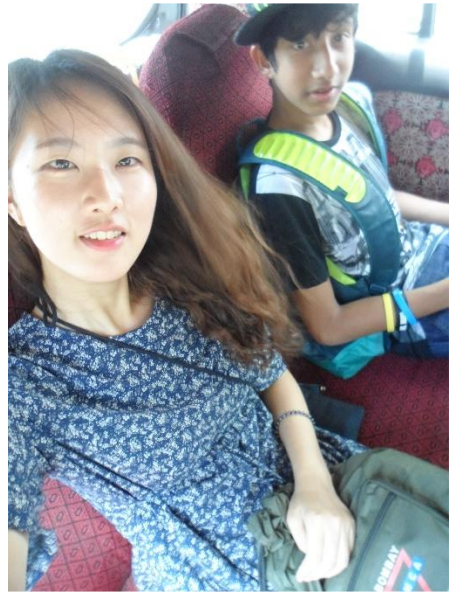
사친바이야!! 디파디디!!
우리 얘기 했어요~?
우리 정말 귀여웠죠?헤헤

(바베쉬, 디라쉬)

그리고 디파는 평소에 해보고 싶던 리스트들을 짰는데, 이 리스트를 보고 사친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지 "'일일 나무까까'(하인)가 될 테니 그 리스트대로 함께 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결국 함께 하기로 했다. 새벽 네 시에 일출을 보러 집에서 나와 새벽 인도의 모습을 만끽한 후 게이트웨이오브인디아에서 진행하는 래핑 클래스(정말 유명하다고 한다)에 들어가려 했으나, 클래스가 열리지 않아ㅠㅠ(하필 그 날 래핑 클래스 선생님이 아프셨다고 치자…) 갈 곳을 잃어 타지마할 호텔 화장실만 구경하고 나왔다. 그리고 모닝 짜이를 마시며 분주한 인도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봤고, 엘리펜타섬에 가서 옥수수를 뺏어간 날강도 같은 원숭이들과, 쿨하고 멋진 인도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스타벅스 인도 1호점을 찾아 들어갔으나, 알고 보니 4호점이여서 분노의 스무디를 마셨고 그 후 맥주 한 잔을 먹기 위해 1시간동안 맥주를 찾아 다녔다. 맥주를 얻은 후 손을 벌벌 떨면서 텀블러에 옮겨 담았고 누가 보지는 않을까 벌벌 떨면서 마린드라이브의 일몰을 감상하며 맥주를 마셨다. 소름 돋게 좋았다. 그리고 어둠의 까마티푸라를 경험 해보고자 밤에 까마티푸라를 쏘다녔는데, 그 곳에서 바베쉬, 디라쉬(D.C.C. 귀염둥이 우리 애들)가 우리를 보고 소리를 질러 극적인 만남을 하였다. 정말 짜릿한 경험이었다고 한다.

요번엔 귀욤둥이 핸쫄이 들려줄꼬야, 사앗사앗팀의 휴가이야기!

#꿀 같은 휴가이야기,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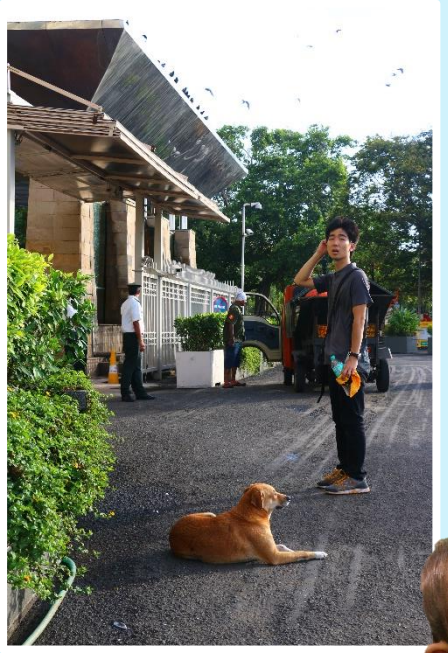


따라 디디의
뭄바이 투어!
☺

그거 알오? 사앗사앗
팀은…카메라가 두대
야…그래서 아쉽게도
…아자드 바이야 사진
이 없져…흑….

요번엔 귀욤둥이 핸쯜이 들려줄꼬야, 사앗사앗팀의 휴가이야기!

#꿀 같은 휴가이야기, 하나



요번엔 귀욤둥이 핸쫄이 들려줄꼬야, 사앗사앗팀의 휴가이야기!

#꿀 같은 휴가이야기, 둘

넷 모두가 서로의 바람대로, 각자의 휴가를 보낸 이후, 우리들은 '함께' 공항으로 떠났다.

휴가 첫날은 아자드의 날이었다. 휴식을 위해 좋은 호텔에서 묵었고, 가끔 지루해질 즈음에 소소하게 근처 구경을 갔다. 다라, 사친, 디파는 릭샤를 타고 께랄라를 한 바퀴 돌았다. 힌두템플에서 까마귀에도 모이도 주고, 박물관에 들려 우표도 사고, 운전기사의 지도 하에 직접 릭샤를 운전해보기도 하고 께랄라식 마사지도 받았다. (께랄라 마사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친 상태로 받아야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모른 채 받으러 갔다가 식겁함) 아자드는 셋이 나간 후에도 계속 잠을 자다가 한참 지난 후에야 일어나 숙소 근처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릭샤를 타고 이곳 저곳을 배회하기도 하다가 돌아 왔다고 한다.

각자의 관광을 끝낸 밤, 우리는 께랄라의 유명한 공연인 '카타칼리'를 보러 갔다. 공연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멋졌고, 공연의 열기가 식기 전에 우리들은 서둘러 공연장 옆 티벳 음식점으로 향했다. 다양한 먹거리 앞에서 우리들은 또 행복해졌다 (ㅋㅋㅋ)

힌두템플 앞에서 룽기입고!

비둘기 모이주기에 신난 사친!

께랄라 전통 공연 카타칼리

요번엔 귀욤둥이 핸쯜이 들려줄꼬야, 사앗사앗팀의 휴가이야기!

#꿀 같은 휴가이야기, 둘

께랄라에서의 행복한 이틀이 지나고, 다음 행선지인 고아로 향하는 기차 티켓을 미리 예매하지 못한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남겨진 특별한 티켓 분량, '땃깔' 을 구하기 위해 새벽같이 기차역으로 나가 줄을 서고 기차표를 구매했다. 예매 후 우리들은 다라의 계획인 '알레피'에 있는 선상가옥으로 향했고, 몇 번의 실랑이 끝에 나름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선상가옥을 찾을 수 있었다. 그 날 비가 온 덕분에 우리들은 배를 타고 가는 내내 빗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낮잠도 자고, 일기도 쓰고, 노래도 듣고, 또 샤미탑이라는 영화도 보았다. 저녁에는 낮에 미리 사놓은 타이거 새우와 게 그리고… 맥주 (환상! The love…) 를 먹고 마시며 선상가옥을 즐겼다.

땃깔을 구하기 위해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는 사앗사앗팀

좋은 건 크게!!!핵맛 짱맛!!!!*.*

더럽…the love…♡

요번엔 귀욤둥이 핸쯜이 들려줄꼬야, 사앗사앗팀의 휴가이야기!

#꿀 같은 휴가이야기, 둘

다음 날, 전날 구한 기차표로 고아로 향했다. 저녁에 출발해서 낮에 고아에 도착하는 야간 열차다. 사실 비행기로도 갈 수 있었으나, 인도까지 왔는데 기차여행은 한번 해보고 싶기에 12시간 기차를 타기로 했다. 기차여행은 정말 재미있었다. 인도 기차는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A/C가 달린 칸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가 있고, A/C가 없는 SLEEPER 칸도 있고, A/C도 없고 누울 수 있는 자리도 없는 일반적인 기차 칸도 있다. 휴가만큼은 에어컨을 쐐보고 싶다며 우리는 A/C 3등급에서 하루를 보냈다. 이 곳에는 한 칸에 침대가 8개 있어서 윗사람, 아랫사람, 옆 사람들이 조그마한 소음이라도 내면 바로 들을 수 있다. 이 날, 우리 칸에는 아이들과 한 부부가 탔는데 밤새 아이가 칭얼대는 소리에 안 그래도 잠귀가 밝은 다라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디서나 푹 잘 자는 디파, 아자드, 사친은 이 기차 속에서도 역시 꿀잠을 잤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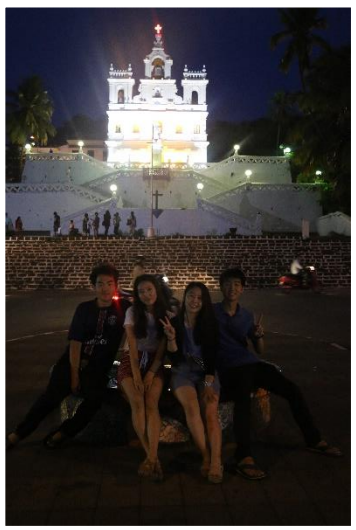
12시간을 달려 고아에 도착한 후, 우리들은 빤짐에 갔다. 예약한 숙소가 없어 빤짐에서 직접 숙소를 찾아보려 다니다 그나마 괜찮은 호텔로 숙소를 잡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숙소에 바퀴벌레들이 가득했고, 청소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다. 디파는 호텔 매니저에게 청소를 다시 해달라고 부탁했다. 호텔 매니저는 '가네시'라는 직원을 방으로 보냈는데, 그 직원은 자꾸 농땡이를 부리고, 시간을 버기고, 청소도구 가지러 간다고 말해놓고 30분간이나 돌아오지 않고, 돌아온 후에도 바퀴벌레에게 바퀴벌레 약 대신 방향제를 뿌리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였고, 디파는 엄청 분노했다. 화가 난 디파는 팀원들과 함께 사친이 알아본 레스토랑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과 맥주로 스트레스를 풀었다. (비밀이지만 우리들이 이 식당에서 가장 많이 먹은 손님이었던 것 같다. 메뉴만 열댓 가지 시켰…. 식신들….) 맛있는 음식, 그리고 맥주를 먹고 한껏 신난 우리들은 처음으로 '누가 누가 술 더 잘 마시나' 대회를 열었고, 아자드, 다라, 사친을 꺾고 디파는 인도 팀의 주량 일인자가 되었다.
(아, 인도에서 유일하게 고아지역에서만 주류세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가게에서 먹은 큰 맥주 한 병이 단돈 70루피 1400원!!!!)

요번엔 귀욤둥이 핸쯜이 들려줄꼬야, 사앗사앗팀의 휴가이야기!

#꿀 같은 휴가이야기, 둘

예상외로 아늑했던 기차여행!

고아음식은…the love…♡
손을 멈출 수 없었다….



요번엔 귀욤둥이 핸쫄이 들려줄꼬야, 사앗사앗팀의 휴가이야기!

#꿀 같은 휴가이야기, 둘

휴가의 마지막 날, 우리는 안주나 비치로 향했다. 안주나 비치에 있는 숙소는 그 전날 갔던 숙소와 차원이 다른 별 다섯 개 느낌 가득한 리조트였다. 우리는 숙소 한가운데에 있는 수영장에서 잔뜩 물놀이도 하고, 멀고 먼 바다에도 놀러 가고,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신나는 하루였다.

아침에 다라를 데려다 주러(알 수 없는 오류로 비행편이 혼자만 다르게 예매되었다.) 공항에 갔는데 직원이 옆에 있던 나머지의 티켓도 보여 달라기에, 그러려니~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보딩패스여서 공항 안에 갇혀버렸다. 그래서 다라가 집에 간 이후에도 우리는 작디 작은 공항에서 여섯 시간을 대기했다. 그 사이 다라가 혼자 집에 오다 이상한 택시기사를 만나 불쾌한 질문들을 듣고 무척 분노했고, 다른 비행기를 타고 온 아자드, 사친, 디파도 공항 앞 택시기사가 돈을 더 받기 위해 사기를 치려다 사친의 대담하고 당돌한 대처로 정가를 낼 수 있었다. (처음으로 사친이 큰 소리 내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휴가 덕에 여태까지 받았던 피로, 그리고 스트레스를 모두 날릴 수 있었고, 활동에 더 열심히 임할 수 있게 되었다.

요번엔 귀욤둥이 핸쯜이 들려줄꼬야, 사앗사앗팀의 휴가이야기!

쉬어갑시다

이전 월보에 예능요소가 적다는 성찰을 기반으로 준비했습니다.

국내훈련부터 약 5개월을 함께한 인도팀, 이제 우리 서로 알만큼 알지 않나? 싶어 준비한 코너!

- 완벽한 익명투표 (그러나 서로의 글씨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게 함정..익..익명인 듯 익명 아닌 익명 같은 투표)
- 1위부터 4위까지 점수를 매겨 등수를 정하였다. 그리고 코멘트는 각자가 쓴 내용을 모두 옮겨 담았다.
- 상처받지 않기 (ㅋㅋㅋㅋ)
- 좋은 질문의 1등(+컬러) 2등 에게는 예쁜 사진, 그리고 3, 4등(+컬러)에게는 엽사

순위 정하는 인도팀

A. 인도팀 주량 왕은?

1위. SACHIN(승희) 2위. DEEPA(나영)

* 도미닛!(2분만…)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1위?
* 자존심 살려주기
* 진심 술 센 척 SC(SaChin)!!!!

* 우웩!!!

3위. AZAD(도원)

* (술 마시면)얼굴 너무 빨갛고 못생겼다.

4위. TARA(예현)

* 걍…힘듦
* 넌 500도 못 마시잖아

B. 인도팀 식탐 왕은?

1위. TARA(예현) 2위. AZAD(도원)

* 먹기 위해 사는 듯
* 내(본인)가 생각해도 답이 없다
* 어제…영화관…

(참고: 딤섬,피자,,초코쉐이크 콜라,던킨 먹음)

* 난 걍 많이 먹음
* 치열하다. 다라와 손톱만큼의 차이
* 돼지

3위. DEEPA(나영)

* 참는 것..
* 유혹하면 다 넘어옴

4위. SACHIN(승희)

* 안먹음
* 의무적으로 먹는듯

C. (또래) 인기왕은?

1위. TARA(예현) 2위. DEEPA(나영)

* 인기하면 나지 ^^(본인작성)
* 어휴 대단하지
* 걍 두루두루

* 키 때문에 또래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3위. AZAD(도원)

* 호불호 개심함(본인작성)

4위. SACHIN(승희)

* 미…미안..
* 어린 여인네들에게 인기가 많음
* 또래들이 존재를 잘 모르는 것 같음

C. (어른) 인기왕은?

1위. DEEPA(나영) 2위. TARA(예현)

*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에게 적합함
* 예뻐서 (본인작성)
* 싹싹하게 잘한다.

* 사근사근

3위. AZAD(도원)

* 날라리

4위. SACHIN(승희)

* 모범생
* 어른들이 존재를 모를 것 같음
* 말이 없음..

국내훈련부터 약 5개월을 함께한 인도팀, 이제 우리 서로 알만큼 알지 않나? 싶어 준비한 코너!
- 완벽한 익명투표 (그러나 서로의 글씨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게 함정..익..익명인 듯 익명 아닌 익명 같은 투표)
- 1위부터 4위까지 점수를 매겨 등수를 정하였다.
- 상처받지 않기 (ㅋㅋㅋㅋ)
- 좋은 질문의 1등에게는 컬러풀한 예쁜 사진, 그리고 4등에게는 컬러풀한 엽사

순위 정하는 인도팀

E. 인도팀 잠만보는?

1위. AZAD(도원)
* 안 깨우면 하루가 없어질 듯
* 맨날 잠
* 답 없음

2위. SACHIN(승희) & TARA(예현)

* 은근히 많이 잠
* 일찍 자면 자는 거고…
  일찍 일어남
*그냥 잘 잔다.

* 일찍 잔다.
*잠을 많이 '못' 잠

4위. DEEPA(나영)
* 늦게 잠.

F. 인도 와서 체중이 가장 많이 늘었을 것 같은 사람은?

1위. AZAD(도원)
* 저격질문 감사요
* 먹는 거 보면 진짜…어휴
* 강… 돼지

2위. SACHIN(승희) & TARA(예현)

* 살찌우려는데 안 찐다
* 따라가 워낙 잘 먹어서…
(사친을 3등으로 뽑았던
사람이 말함)
* 의도적 살찌기

* 사친은 살찌우겠다고
운동해도..;다라 넌..?
왜?

4위. DEEPA(나영)
*자기 운동한다고 이런
질문하고 말이야~~
* 다이어트 장난 아니게
열심히 한다.

G. 뿌요뿌요(게임) 왕은?

1위. DEEPA(나영)

* 원조b!
* 흔들리는 1위

2위. TARA(예현)

* 최근 1위 탈환할 기세
* 세대교체 준비 중

3위. SACHIN(승희)
* 입으로 뿌요뿌요함
* 6:1(발림)

4위.AZAD(도원)
* 난 별로 관심이 음슴
(비겁한 변명)
* 답이 없다.

H. 친한 친구, 아는 언니 오빠, 동생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지 <u>않은</u> 사람은?

1위. AZAD(도원)

* 나이가 많다. 나쁜남자다
* 완벽하지(본인작성)

2위. SACHIN(승희)

* 미안..노잼..
* 연…애…?..ㅎ..
* 그냥….무..무난

3위. TARA(예현)
* 음란함…
* 인기가 너무 많다.

4위. DEEPA(나영)
* 재미있을 것 같다.
내가 사귀어보고 싶다.
근데 쫌 나쁜 여자같다
* 2세…키가..
*쩐다(본인작성)

이름은 **보조**.
안데리YMCA 오스틴 Sir의 애완견으로서 인도팀 남자방 옆 **복도**에서 살고 있다. **냄새**와 **개털**로도 모자라 요즘은 시도 때도 없이 짖어대고 있다. 주인 말도 안 듣는 이 개 때문에 아자드의 **스트레스** 정도는 올라가고 있다는…

사진 없는 그는 공항에서 만난 **택시기사**.
고아에서의 휴가를 마치고 뭄바이 국내선 공항에 도착했을 때다. **비**는 억수로 쏟아지고, 이미 **double-booking**으로 택시 하나를 보낸 상황에서 또 다른 Prepaid Taxi에 인도팀 일행은 탑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요금**이 잘못됐다고, 돈 더 달라고 외치는 기사 때문에 화낸 적 없던 사친이 **언성**을 높였다는…

사진없음

사진없음

"문에 붙어있는 바퀴벌레 시체와 빤 것 같지 않은 침대커버는 시작에 불과했다!!"

사진 없는 그의 이름은 **가네쉬**.
고아 빤짐 한 숙박시설의 청소 담당 직원으로 그 곳에 머무르게 되면서 마주치게 되었다.
방에 **바퀴벌레**가 들끓고 쓰레기통에 그전 손님들의 쓰레기가 남아있는 등 청소가 되어있지 않아 그를 불렀으나 그는 우리 방으로 오는 데에만 30분, 그리고 바퀴벌레를 보더니 바퀴벌레 약 가져오는데 30분, 더군다나 가져온 약은 바퀴벌레약이 아닌 방향제. 청소도 느릿느릿, 걸레질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청소 중 갑자기 가네시가 사라졌는데 알아보니, 이게 뭔말… **퇴근!!!** 그날 분노한 디파는 처음으로 맥주를 취할 때까지 마셨다는..

*참고 : 디파는 **바퀴벌레혐오자**이다.

그의 성함은 **Mr. 오스틴**.
안데리YMCA의 담당 세크리테리이다.
첫만남때의 이미지가 무척 좋으셔서 자상하고 친절하실 줄 알았으나…
최근 **영화 프로젝터 사건**부터, 컴퓨터실 **시간 제한**까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이유를 들어가며 얘기하시는 그분 때문에 따라의 **혈압**이 올라갔다는…

Mr. 오스틴 쿤더

맛있는 건, 사앗사앗!

인도에 넘쳐나는 맛있는 음식들…
뭐 하나 고르기 힘들만큼 맛있는 게 너무 많지만
오늘은, 우리 동네 길거리음식 스페샬!

골라, Gola!

다양한 맛, 다양한 색.
얼음 촵촵 갈아서, 꽝꽝 뭉친 다음 시럽 솩솩 뿌려주는 간단한 것이지만 어떤 맛을 고르냐에 따라 골라에 대한 인상이 달라질 것 같다.

추천: 더울 땐, Mixed flavor에 처트니 !!!!!많이!!!!!!

Jumbo King!

안데리 역 앞에서 우리 팀을 항상 유혹하는 인디언 패스트푸드! 그럼 또 못 이기는 척 가게 되는 곳… 맥*날* 햄버거와는 또 다른 버거와 랩들!

추천: 기차 타러가는 길에, 매운 맛 + 야채 콤보 쉐췐뤱!

Samosa Pav!

사실 한 번 밖에 못 먹어 봤다… 매운 맛 엄청 훅! 오는 세모 모양의 튀김 만두 같은 사모사를 빵 안에 넣어주는 푸짐한 음식! 10루피(180원) 밖에 안 한다!!

추천: 배고픈 자에게 10루피의 복이 있나니!

프랭키, Frankie!

이건 먹어 보지도 못했지만… 아이들 학교 가는 길에 있는 노점에서 엄청 맛있는 프랭키를 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프랭키는 사진도 더럽.. (the love…♥)

추천: 우선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한국 음식도, 사앗사앗!

인도 생활 네 달 째, 가끔 한국 음식이 생각나면?
중간평가 이후 얻은 무기들을 꺼내어 해치우는 사앗사앗
우리 한국보다도 더 잘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김치찌개

그냥 먹어도 맛있는 김치지만… 물 붓고 참치 한 캔 따서 넣고, 라면 스프라도 촵촵 뿌려주면 진짜 난리난다. 이렇게 김치 두 봉지를 이틀 연속으로 찌개로 끓여 해치웠다. 사진을 핥고 있다.

비빔밥

아무리 예쁘게 찍으려 해도 예쁘게 나오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비벼진 비빔밥이 아니던가. 하지만 지금 나는 이걸 쓰면서 파블로프의 개라도 된 마냥 침을 흘리고 있다… 진짜 핵 맛있었다.

떡볶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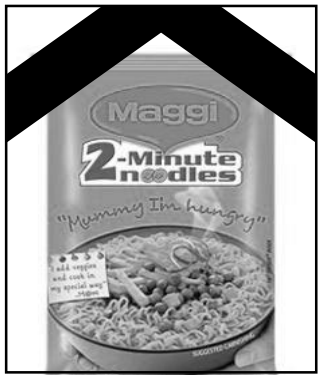
디파 머리 뒤에 떡볶이 있어요. 은솔 간사님께서 중간 평가 때 사다 주신 떡볶이…♥ 저희 여기서 라면 사리까지 넣어서 해 먹었습니다.
은솔간사님… 사… 사… 사친… ♥

불닭볶음면

특히, T모양의 소울 푸드가 아닐까 싶다. 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맛있게 맵다. 주후 아이들에게 한국의 매운 맛을 보여준다며, 모두가 즐겁고 맛있게 사앗사앗, 그리고 바닥까지 싹싹 훑어 먹고 왔다.

Maggi의 후계자를 찾아서

– Azad의 여정 (feat. Tara)



어느 순간, 마트에서도 미나 스토어에서도 집 앞 슈퍼에서도 Maggi(카레 라면)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밥을 먹고도 2% 부족할 때, 아니면 열두 시 점심시간과 일곱 시 저녁시간 사이 기나긴 공백에, 혹은 그냥 배가 고파올 때 Maggi를 종종 끓여먹곤 했는데 Maggi가 사라지자 허전했다. 알고 보니 Maggi는 납 성분이 초과되었다는 스캔들이 터진 후 판매 금지 조치를 당한 것이었다. 나는 납이 들어있어도 Maggi가 먹고 싶은데, 파는 곳이 없으니 먹을 수가 없었다. Maggi를 팔지 않는다고 내 허기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으니 나는 Maggi의 대체재를 찾아야만 했다. Maggi가 사라진 자리를 살펴보니 꽤나 다양한 라면이 자리하고 있었다. 몇몇 라면을 찾아 맛 보았지만 그 어느 것도 아직 Maggi를 뛰어넘지 못한 것 같다. 그래도, 그 중 나은 것을 찾아 보았다.

Yippee는 Magic masala 맛이 매우 뛰어나다. Classic masala는 조금 허전한데, Magic masala는 정말 마법이라도 부린 맛이다. 특히 면발이 아주 탁월하다. 그 다음은 Ching's secret이다. 나쁘지 않다. 포장지의 남자 얼굴이 아주 매워 죽겠다는 표정이라 기대하고 샀지만 맵지는 않았다. 다만 다른 라면보다 조금 비싼 것이 흠이다. 3위는 Top ramen이다. 이름은 Top인데 맛은 아쉽게도 Top이 아니었다. 칼국수 같이 넓직한 면과 커리, 마살라 맛의 조화. 나쁘지는 않지만 또 먹고 싶은 맛은 아니다. 그 외에도 다른 라면들은 기억에 남지 않는 맛이다. 무튼 인도에 오면 꼭 Maggi를 찾아 먹어 보자. 10루피 값은 한다. Maggi가 없으면 Yippee를, 꼭 매직 마살라 맛을 먹어보고, 그것도 없으면 Ching's secret을 먹어보자. 한국에서 비빔장을 사와 면과 비벼먹어도 아주 환상적인 맛을 느낄 수 있다. 쩐다. 따라도 보증하는 맛이다.

시끌벅적
6월의 도비가트는?

도비가트 이야기, 하나

5월말 350PPM 캠페인 당시 발자국을 만들기 위해 색지를 잘라 사용했었는데, 그때 삼각형 모양의 자투리 종이가 많이 남게 되었고, 이것들을 이용해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따로 모아두었었다. 문득 자투리 종이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고, 이 종이들을 이용해 도비가트 아이들에게 나눔의 의미를 알려주고, 더불어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다. 색연필, 사인펜 등 뭔가를 아이들에게 나눠주면 다른 아이들과 같이 나눠 쓰기보단 혼자서 쓰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아이들이 나눔의 의미를 배웠으면 하는 기대를 품고 활동을 진행했다. 아이들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마다 특정 개수의 삼각형 자투리 종이를 주고, 각 그룹 인원이 똑같은 개수의 자투리 종이를 가지게끔 나눠보라고 했다. 하지만 활동이 시작하자마자 선생님께서 개입을 하셨고, 직접 종이를 나눠주시기까지 하셨다. 아이들은 그런 선생님의 행동을 따라 했고, 점점 우리가 원했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활동이 흘러갔다. 그래서인지 아쉬움이 남았다. 만들기 활동도 곧바로 진행했다. 이전 활동과는 달리, 이번에는 만들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삼각형 자투리 종이를 사용해 각자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어보라고 했다. 뭘 만들지 몰라 아이들이 멀뚱멀뚱 있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우려와는 달리 별도 만들어서 보여주고, 배도 만들어서 보여주고, 종이에 평면으로 붙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입체로 세워서 붙이기도 했다. 만들기 활동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선생님께서 칠판에 별을 그리고 난 후부터 아이들이 독창적으로 만들던 것을 다 뜯어내고 별만 만들려고 했다는 점이다.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했는데, 뭔가 다시 제한적이게 된 것 같아 아쉬웠다.

아이샤와 함께 도비가트의 6월 이야기, 들어보세요!!끄!

도비가트 이야기, 둘

도비가트 아이들에게 활동으로 꿈을 물어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의 대답은 선생님, 경찰관, 그리고 의사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학교에서 정규교육을 받지 않다 보니 직업교육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려주는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다. 영화감독, 배우, 운동선수 등 다양한 직업 사진을 준비했고, 아이들에게 각 직업은 어떠한 일을 하고,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었다. 자신이 되고 싶은 직업의 유니폼을 종이로 만들어보는 후속활동 또한 진행했는데,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해주었다. 아이스크림 파는 사람이 되겠다며 종이 옷에 아이스크림을 그리는 아이도 있었고, 경찰관이 되겠다고 한 한 아이는 종이로 총도 만들기까지 했다. 아이들의 기발함에 놀라고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다. 아쉬운 점 또한 많았다. 몇몇 아이들을 종이가 부족해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고, 활동을 끝내고 센터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나누어준 종이가 찢겨진 채로 바닥에 버려져 있었다. 물론 한번 하는 활동이고 한번 입는 옷이라지만, 그 장면을 보았을 때 마음이 아팠다.

아이샤와 함께 도비가트의 6월 이야기, 들어보세요!!끄!

도비가트 이야기, 셋

도비가트 센터에 구급상자도 비치하였다. 도비가트에서 활동을 할 때면 한두 명씩 다친 아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센터 안에 먼지도 많고 아이들이 맨발로 센터 안팎으로 드나들기도 해 위생문제로 상처가 더 심해지지는 않을까 걱정을 해왔었다. 아이들에게 필요할 것 같은 약들 위주로 준비했고, 약 이름과 용도 또한 간략하게 적어서 선생님께 드렸다. 우리가 가더라도 구급상자 안의 약이 계속 채워질 수 있게 제안서 또한 제출했다.

아이샤와 함께 도비가트의 6월 이야기, 들어보세요!!끄!

주후
이렇게 놀아도 될까요?

주후 이야기,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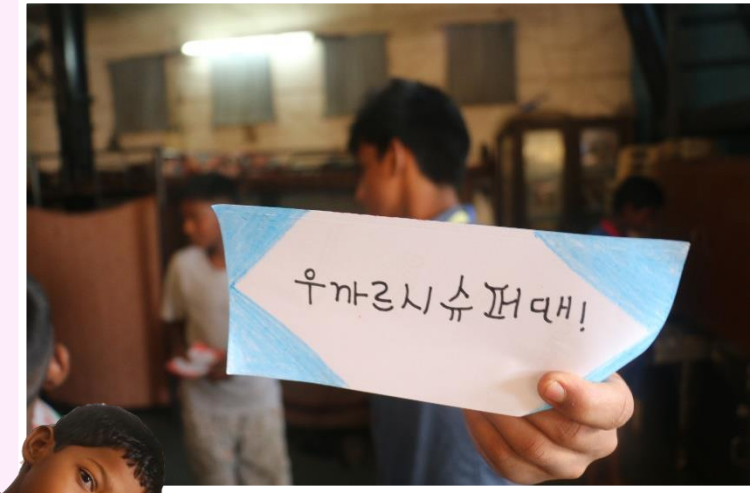
휴가 막바지, 앞으로 남은 활동들의 큰 그림을 그려보며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고, 특히 보이즈홈이나 주후처럼 아이들의 방학으로 휴가 이전부터 활동을 중단해야만 했던 곳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그저 흘려보내기가 더 아쉽게 느껴졌다. 무엇을 해야 시간을 더 알차게, 아깝지 않게 보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며 활동들을 하나하나 계획했다. 달이 바뀌면서 아이들의 방학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왔다. 다른 활동지에 비해 주후나 보이즈홈은 우리가 지내고 있는 곳과 가깝기 때문에 우리도 더 자주, 더 부담없이 아이들을 만나러 갈 수 있었다.

이번 달, 우리가 주후 아이들과 함께 한 활동을 하나씩 돌아보면 사실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함께 영화를 보며 한국 라면을 끓여 먹었고, 하나 둘씩 모여 앉아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었고, 축구를 했고, 한국 게임을 하기도 하고, 또 물풍선을 던지고 다 같이 물을 뒤집어 쓰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었다. 아이들과 함께 매운 한국 라면을 끓이고 그저 아이들이 맛있고 즐겁게 먹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나 방학 동안 무엇을 했는지 서로 물어 보는 것, 못 본 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털어 놓는 것, 땀이 마를 새 없이 뛰어 다니는 것, 이런 '일상' 같은 것들을 함께 했을 뿐 뭔가 특별한 '활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주후에서는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또 무엇인가를 이루어 내야만 한다는 강박 같은 건 다 날려보내고, 온전히 아이들이랑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더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 같다. 그리고 정말 고맙게도 아이들은 우리와 즐겁고 재밌게 놀아주었다.

우리 팀에게 주후는 어쩌면 가장 이루어낸 것이 없어 보이는 곳일지도 모른다. '아이들과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생각하며 나중에 후회하게 될 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주후에서 보낸 시간들이 정말 행복한 순간들이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다. 후회는 언제 우리를 찾아올 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이번 달도 우리는 주후에서 아이들과 함께, 분에 넘치도록 즐겁게 놀았다는 것이다.

누나들~라훌이랑 같이 주후 소식 볼래요? 아잉~♥ 누나 어디봐? 요기봐 요기~

주후 이야기, 사진



누나들~라훌이랑 같이 주후 소식 볼래요? 아잉~♥ 누나 어디봐? 요기봐 요기~

우리집
보이즈홈

보이즈홈 이야기, 하나

일주일간의 짧은 만남을 가지고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시 만나기를 기약했던 우리와 아이들은, Saath Saath팀은 350PPM 캠페인과 캠프로 바쁜 나날들을, 아이들은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한 달 반 정도 만에 반가운 만남을 다시 했다. 보이즈홈 아이들은 다른 사이트와는 달리 아침에 일어나 잘 잤냐고 안부를 묻고 얼굴을 마주하며 밥을 먹는 가족 같은 존재다. 우리 모두에게 66명의 남동생이 생겼달까..!! 다음은 66명의 남동생들과 함께 하고 있는 Saath Saath 팀의 생활을 재구성한 것이다.

5:30AM

보이즈홈 새벽 운동이 시작된다. 보이즈홈 새벽 운동의 시작을 이야기하자면, 보이즈홈의 새로운 담당자로 오게 된 진슨과 보이즈홈 최고참을 바라보는 디네시의 힘 당기기가 발단이 되었다.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하길 바랬던 진슨은 농구시간을 모두 없애버렸고, 발끈했던 디네시가 진슨이 참관하고 있던 수업시간에 손을 들어 선생님께 질문을 날렸다. “선생님, 청소년기에 운동은 공부에 도움이 되나요?” 선생님께서는 당연하게 “그럼, 도움이 되지.” 라고 대답하셨고 디네시는 웃음을 지으며 진슨을 쳐다보았다고 한다. (진슨 왈) 어떻게 복수를 할까 고민한 진슨은 “공부에 도움이 된다니 운동해야지, 새벽 운동이 그렇게 좋다니 이제 매일 5시 반에 운동하자.” 라며 새벽운동을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아이들은 매일 아침 눈을 비비며 농구코트를 뛰고 있다… 우리 Saath Saath팀도 2주 정도는 꾸준하게 함께 참여했지만…점점 잠의 노예가 되어가며…출석률이 낮아지고 있다.

제가 Dinesh 입니다마는…?
새벽운동쯤이야….ㅎㅎㅎㅎㅎ

놀랐지 디네시?
내가 너보다 한 수 위란다…
새벽 운동 화.이.팅
운동하니까 성적도 올라야 된다..^^

야, 뭘 보냐? 나 처음보지? 나 라떼시다. 이래봬도 내가 보이즈홈 끝판왕이야. 읽어.

보이즈홈 이야기, 하나

6:30AM 보이즈홈 아침 시간이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퉁퉁 부은 못생긴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밥을 먹는다. (아이들이 여자에 대한 환상이 없어질 것 같다. 아니 없어진 게 분명하다…) 분명 초반에는 “굿모닝”이 인사였는데, 요즘은 “못생겼어”가 아침인사가 되어버린 것 같다.

7:00AM 아이들과 함께 등교하는 시간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장난도 치고 많은 이야기들도 나누며 걸어간다.
특히 이 시간에 많은 비밀들이 공유되곤 하는데, 하… 비밀이지만 많은 아이들이 새 학기를 맞이해 사랑을 꽃피우고 있다.(사친 : 또르르…)

12:10PM 보이즈홈 쪼꼬미들이 등교하는 시간이다. 스케쥴 상 등교를 많이 함께 하진 못하지만 갈 때 마다 함박웃음을 지어주며 좋아해주는 귀여운 아가들이다. 학교 앞에서는 우리를 약간 창피해하는 것 같은 큰 아이들과는 달리 (학교 앞만 가면 돌변한다…..나쁜녀석들…) 우리가 학교에 함께 가는 걸 정말 많이 좋아해준다. 문제는 등교할 때 누구 손을 잡느냐를 두고 아이들끼리 많이 다툰다는 것..!!! 그래서 3분 간격으로 손을 바꿔가며 등교하고 있달까…!!

1:00PM 큰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다. 큰 아이들과 함께 맛난 점심을 먹는다. “못생겼어!” ,“바보”, “먹어!!!” 시답지 않은 농담들과 장난이 오가는 시간이지만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쉽게 표현할 수 없는 큰 의미를 갖는 것 같다. 우리는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

니들이 더 못생겼어….

야, 뭘 보냐? 나 처음보지? 나 라떼시다. 이래봬도 내가 보이즈홈 끝판왕이야. 읽어.

보이즈홈 이야기, 하나

5:30PM 아이들의 농구 클래스 시간이다. 진슨이 없애버렸던 농구 시간이 다시 부활했다. 아이들이 자꾸만 농구 시간에 와서 본인이 골 넣는 장면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는데…….골이 안 들어간다…..분명…..우리 애들…농구 잘 한다고 했는데…..긴장한 탓이겠지……골이…너무 안 들어간다…..

얘들아, 골은.. 언제 넣을 예정이야?

7:30PM 저녁 시간이다. 또 밥 먹는다. 또 장난치고 논다. 엉클한테 걸리면 혼난다. 간혹 까먹고 테이블 앉았던 곳 또 앉거나 옆자리에 오라고 했는데 못 가면 쉴 새 없이 컷띠가 날라온다. 밥 먹는 동안 우리의 텀블러는 눈을 살짝 만 떼도 사라져있다. 냉동실, 급식대 안, 부엌… 골고루도 숨겨놓는다. 식사 후 잠시 수다를 떨다 기도 시간, 공부 시간이 오면 이르지만 굿나잇 인사를 하고 내일의 만남을 다시 기약한다.

야, 뭘 보냐? 나 처음보지? 나 라떼시다. 이래봬도 내가 보이즈홈 끝판왕이야. 읽어.

보이즈홈 이야기, 둘

우리는 아이들과 일상생활을 함께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무언가 함께 하고 싶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두 번의 체육활동을 함께 했고, 영화보기와 한국음식 만들기 시간을 준비했었다.

체육활동시간을 부여 받은 우리는 한번은 런닝맨 게임, 한번은 단체 줄넘기시간을 준비했다. 런닝맨 게임을 하던 날은 엑스보이인 라훌이 함께 와서 진행해주었는데, 함께 자란 형아라 그런지 집중해서 설명도 잘 듣고 해서 무리 없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의외로 아이들이 이름표를 꾸미는 데에 공을 많이 들여서 정말 귀여웠다. 이제는 스스로 한글로 본인 이름을 쓸 수 있는 친구들도 많았다. 게임이 시작하자… 아이들은 빨랐고, 격했고…..빠르게 끝이 났다. 예상 보다 일찍 끝나버린 게임이었지만 다 함께 즐기면서 신나게 뛰어다닐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좋은 시간이었다. 두 번째 체육활동은 단체 줄넘기였는데, 예상외로 엄청난 호응을 받았다. 안데리에는 큰 소리로 “꼬마야 꼬마야” 노래가 울려 펴졌고, 노래와 함께 미션을 끝내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아이들로 인해 팔이 아팠다….하지만 성공한 친구들은 별로 없었다는 게 함정…우리 애들….뭐든지 열심히 하는데…….잘 못한다. (애정 한다 얘들아, 넝담이야ㅎ)

처음으로 형아다웠던 라훌…?

저..점프가..?

야, 뭘 보냐? 나 처음보지? 나 라떼시다. 이래봬도 내가 보이즈홈 끝판왕이야. 읽어.

보이즈홈 이야기, 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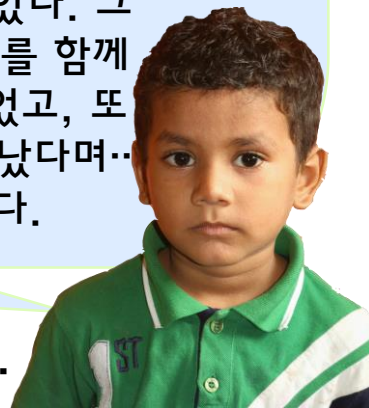
내가 오스틴이다.

진슨 베이비(이름임. 오해금물)

우리의 코디네이터, 리오

보이즈홈 아이들과는 생활을 함께 하면서, 가족처럼 여가 시간도 함께 보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진슨에게 아이들의 TV시청 시간에 함께 영화를 보아도 좋겠냐고 물었고 흔쾌히 허락해주어 일요일 저녁 영화를 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었다. 그런데….. 간단할 것만 같았던 이 활동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사건의 경위는 이러하다.

아이들에게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선 프로젝터와 스피커가 필요했다. 우리는 진슨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했고, 진슨은 까먹었다. 그래서 당일 우리는 우리끼리 안데리 ymca안 어디에 프로젝터와 스피커가 있는지를 찾아야 했고, 안데리 ymca secretary로 새로 온 오스틴에게 프로젝터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오스틴은 프로젝터를 반드라 ymca로 빌려주었다며 미리 말을 하지 그랬냐며 반드라에 있는 세바스찬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했고 우리는 곧 바로 세바스찬에게 전화 후 반드라로 프로젝터를 빌리러 가기 위해 출발했다. 세바스찬은 우리에게 흔쾌하게 프로젝터를 빌려주었고, 프로젝터를 들고 릭샤에 타려는 순간 오스틴과 통화를 하던 세바스찬이 우리를 멈춰세웠다. 오스틴이 화가 났다는 것이다. 보이즈홈 담당자인 진슨과 라온아띠 담당자인 리오가 본인에게 활동에 대해 미리 언급하지 않았던 것에 화가 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바스찬에게 만일 라온아띠에게 프로젝터를 빌려주면 다시는 반드라에 프로젝터를 빌려주지 않겠다고 했고 그로인해 우리는 프로젝터를 빌릴 수 없었다. 진슨은 우리로 인해 오스틴의 샤우팅을 들었고…. Secretary들 사이에서는 보이즈홈 활동을 진슨에게 보고 해야 하는지, 오스틴에게 보고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일어났다. 여가시간 한 번 함께 보내려다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고 secretary들 사이의 권력관계도 깊숙이 알게 되었다. 오스틴과 우리의 코디네이터인 리오가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이 이번 사건의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고…..그래서 우리는 급하게 진슨을 위해 서류로 모든 것을 작성해서 주었고 진슨이 오스틴에게 가서 결재를 받았다. 그러고 나서야 겨우 아이들과 영화를 볼 수 있었다. 아이들과는 아이들이 보고 싶어하던 “Step up all in” 이라는 영화를 함께 보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영어 영화라 영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약간 지루해 했었고, 또 영화 시작 전 스피커 설치에 문제가 생겨 10분 정도 시작이 늦어졌는데…. 오스틴이 와서 원래 하기로 했던 시간이 끝났다며… 마지막 10분…결말을 못보고 영화를 끄게 해서….아이들이 많이 아쉬워했다는 것이다…. 여튼 우여곡절의 영화보기였다.



야, 뭘 보냐? 나 처음보지? 나 라떼시다. 이래봬도 내가 보이즈홈 끝판왕이야. 읽어.

보이즈홈 이야기, 넷

우리와 삼시세끼를 함께 하고 있는 보이즈홈 아이들. 우리 한국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 한국의 문화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준비했다. 라온아띠와 함께하는 삼시세끼!
매주 목요일마다 한국 음식 한 가지씩을 만들어 아이들과 함께 먹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우리의 첫 번째 음식은 탕수육..!! 두둥!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닭고기로 고기를 준비했다. 우리 입맛에는 너무나도 맛있는 탕수육이 완성되었는데!!! 아이들은 소스가 입에 너무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인도의 맛과는 많이 다르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속상했던 건 엉클한테 다같이 무슨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맛있었다며 억지로 와서 이야기하고 가는 아이들이…흑….고맙고 미안했다.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해 미안했던 것은 아이들이 잔반을 남길 수 없어 입에 맞지 않아도 끝까지 다 먹어야 했다는 것이다. 억지로 소스의 야채를 꾸역꾸역 먹으며 표정이 안 좋아지는 어린 아이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가득했었다. 그래서 다음 요리는 좀 더 쉬운 호떡을 준비했다. (예고 : 망함)

야, 뭘 보냐? 나 처음보지? 나 라떼시다. 이래봬도 내가 보이즈홈 끝판왕이야. 읽어.

사앗사앗팀의 라이프가 궁금하오?

사앗사앗팀의 생활!.!

이야기 하나, 사친의 생일 (6월 12일)

따라가 챙겨준 24개의 비스킷과 케잌
사친은 인도의 모든 비스킷을 다 먹게 되었다.

께랄라로 떠나기 전 함께 보낸
생일파티! ^.^

디파가 선물해준 멋진 워터보틀!!!매일 빠짐없이 들고 다닌다.
아자드는 사친에게 미역국을 끓여주었다. 멋진 형아. 본인이 다 먹은 건 함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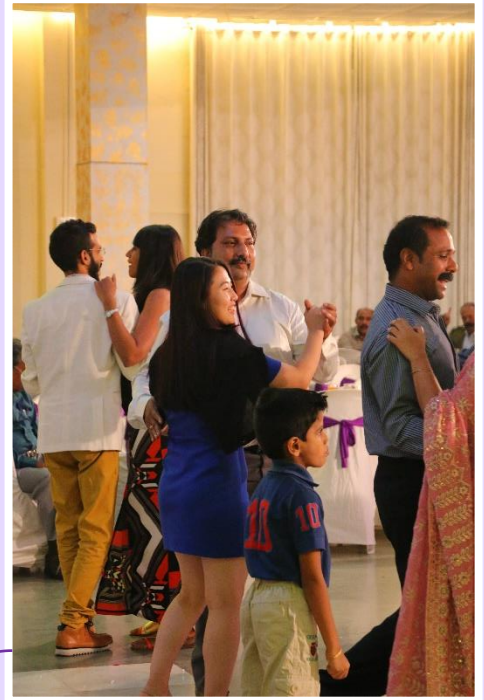
우리네 코디네이터 라파엘도 궁금해하는 사앗사앗팀의 라이프, 들어보시라우.

사앗사앗팀의 생활!.!

이야기 둘, 아물 결혼식에 다녀오다.

라파엘의 밑으로 (드디어 라파엘이 막내를 벗어났다!!) 트레이닝을 끝내고 Secretary로 부임한 아물이 라파엘보다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기대했던 인도 전통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다 함께 춤도 추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어 사앗사앗팀에게도 정말 좋은 추억이 되었다. 우리 코디네이터 라파엘도 하루빨리 좋은 짝을 찾기를 하는 바람이다!

아물의 달달한 눈빛…♥



한 잔 하시고 흥이 넘치신 오스틴 썰 손에 이끌려 무대로 나가게 된 디파….많이 힘들었다고 한다…

우리네 코디네이터 라파엘도 궁금해하는 사앗사앗팀의 라이프, 들어보시라우.

사앗사앗팀의 생활!.!

이야기 셋, 인도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났어요!

홈스테이 이후에 미국으로 여행을 다녀오신 엄마, 아빠를 나비뭄바이에서 다시 만나 뵈었다. 코디네이터 리오의 가족과 홈스테이 엄마, 아빠 그리고 라파엘 이렇게 함께 맛있는 뷔페(*.*)에 가서 그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며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함께 보낸 시간은 그리 짧은데, 그 사이에 나눈 정은 어찌나 컸던지 수다가 끊이질 않았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번 더 놀러 가서 한국 음식을 해드리기로 했다. 엄마, 아빠 the love……♥

우리네 코디네이터 라파엘도 궁금해하는 사앗사앗팀의 라이프, 들어보시라우.

사앗사앗팀의 생활!.!

이야기 넷, 에셀월드를 다녀오다.

3월 부터 놀이공원에 데려가 주겠다던 라파엘의 말은 정말 말뿐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실행에 옮겼다!!! 350캠페인 때 부터 우리와 쭉 함께 해주었던 라훌과 마니쉬와 함께 에셀월드로 출발했다. 우기와 개학으로 놀이공원은 완전 비수기였고, 모든 놀이기구를 줄 없이 탈 수 있었다. 우리는 웬만한 놀이기구는 한번씩 다 탈 수 있었고 물을 잔뜩 뒤집어쓰는 아쿠아다이브와 라훌이 짱짱 좋아하는 범퍼카는 반복..또 반복했다. (범퍼카를 이렇게 많이 타본 것은 처음이다. 허리가 아팠지만, 라훌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무시할 수 없었달까…귀여운 동생..휴..) 우리 사앗사앗팀은 아이스 스케이팅도 하고 레이저 총 싸움도 하면서 그 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릴 수 있었다.

우리네 코디네이터 라파엘도 궁금해하는 사앗사앗팀의 라이프, 들어보시라우.

사앗사앗팀의
너의 목소리가 들려

사친의 이야기

#1
6월 중순에 한동안 인도 남부로 휴가를 다녀왔다. 휴가는 **즐거웠다**. 께랄라의 코친과 엘라삐, 고아의 빤짐과 안주나 비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엘라삐에서의 선상가옥, 께랄라에서 고아까지 15시간의 기차여행, 고아에서 먹은 인도 첫 소고기!!! 휴가를 어디로 갈지 선정하는 것부터, 비행기, 기차 예매하는 것까지 뜻대로 착착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그게 여행의 묘미이지 않을까? 팀원과 **함께한** 여행이기에 의미가 더 깊은 것 같다.

#2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뭄바이에서의 활동을 잠시 중단해서인지, 다녀오고 나서 각 사이트를 찾아갔을 때 기분이 남달랐다. 뭔가 새롭다고 해야 할까… 아니 뭔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것이 초기화된 느낌이라고 할까나… 한동안 집중도 잘 안되고… 동력을 잃은, 뭔가 내 자신이 식어버린 느낌이었다.

사친의 이야기

#3
보이즈홈 아이들이 방학을 끝내고 돌아왔다. 우리들끼리 보이즈홈 식당에서 외롭게 식사를 하곤 했는데, 이제는 다시 시끌벅적하다. 학교 갈 준비 빨리 하라고 호통치는 도너 엉클부터, “너 못생겼어!”를 어눌한 한국발음으로 연이어 외치는 아이들, 심지어 밥 다 못 먹겠다고 징징대는 작은 아이들까지… 매일매일 작던 크던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 보이즈홈이지만, 뭔가 살아 숨쉬는, 사람 사는 곳이 다시 된 것 같아 **마냥 좋다**.

#4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머지 않았다. 활동하랴, 주간보고서 쓰랴, 바쁘게 바쁘게 시간을 보내서 그런지 인도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서의, 내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요즘 따라 이러한 생각들이 문득문득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아… 조금… 걱정이 된다.

따라의 이야기

#이야기 하나

도비가트의 한 아이가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근데 나는 아직도 그 아이가 누군지 모르겠다. 선생님께선 우리의 수업에도 자주 오던 아이라고 하셨는데, 이름을 듣고도 얼굴을 떠올리지 못했다. 그래서 슬픔이 나를 깊숙이 휘어 감아버리지는 못했다. 그게 너무 아팠다. 나와 마주보며 한 번쯤은 웃음을 주고 받았을, 어쩌면 매번 포옹으로 인사를 나눴을 아이였을지도 모르는데…….아이들이 너무 많았다, 아이들이 계속해서 바뀌었다, 이 사이트는 자주 오지 못했다, 그래서 이름을 외울 수 없었다 변명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그만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 아이에게 더 미안해졌다. 서로가 궁금할 때 비로소 친구가 되기 시작하는 게 아닐까. 나는 그 아이들의 친구일까? 그 아이들은 나의 친구일까? 언어가 달라서라고 한번 더 변명하고 싶지만, 보이즈홈 작은 아이들에게 몸짓 발짓 어눌한 힌디로 이것 저것 묻고 있는 내가 보여 속이 상했다.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한번이라도 더 경험하게 하고픈 마음에 사로잡혀 정작 아이들의 눈빛을 바라보는 시간은 적었던 게 아닐까... 어쩌면 도비가트 아이들에게 우리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제 남은 한달 조금 안 되는 시간은 처음 아이들을 마주했을 그때 처럼 눈을 바라보고, 가까이 다가앉아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야기 둘

어느새 이곳에서의 시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따라로 살아가는 이곳의 삶이 마냥 행복해서, 잊고 싶지 않아서 그 시간을 담아두려고만 했었다. 작은 것 하나도 모두 기억하고 싶었고, 기록하고 싶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이곳의 삶을 쏟아져 내리는 햇빛을 맞는 것 처럼,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 처럼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곳의 삶은 내게 일상이 되어버렸다. 아침에 일어나 퉁퉁 부은 눈으로 동생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게 행복하고, 힌디가 불쑥불쑥 튀어나와 당황스럽기도 하고, 시끄러운 경적소리에도 더 이상 놀라지 않는, 어느새 나는 이런 따라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작별이라는 말이 아직은 무서운가 보다. 불쑥 불쑥 속상함이 나를 찾아온다. 언젠가는 꿈에서 너무 서럽게 울며 동생들과 작별인사를 나눠 잠이 깨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기도 했다. 담담하게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마지막이 되어버릴까 봐 자꾸만 슬퍼지나 보다. 그런데 나는 이리도 이별이 어렵고 어색한데 아이들은 익숙한 듯 이별을 예상하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익숙하긴 해도 무뎌지지는 않는가 보다. 우리와의 이별을 벌써부터 슬퍼하고 있었고 왜 자꾸만 가냐고도 물었다. 아이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마다 아프고 생각하기 싫어지지만,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아이들이 나와의 인연을 지금이라는 시간 안에서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미래 안에, 아이들과 내가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묶여있음에 감사하고 나 또한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소중한 인연들과 다시 함께하는 시간이 나의 미래 안에 있기를. 그리고 지금은 이 행복한 시간에 온전히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어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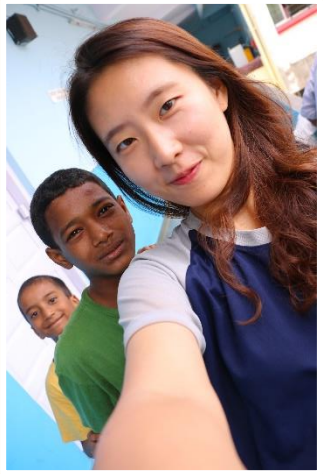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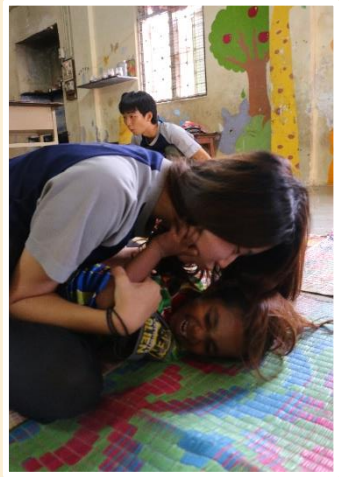
#이야기 셋

내 안의 뜨거움을 주체할 줄 아는 어른이 되고 싶다.

 # 이야기 넷

아이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법. 더 많이 사랑해야지!

따라의 이야기

좀 비켜봐 이것들아…..

아자드의 이야기

#끝

3월 한 달 반짝하고, 갑작스레 마치게 되어버린 까마티푸라 발와디 활동. 뭐 특별하게 같이 한 건 없었지만 계속해서 정말이지 미련할 만큼이나 눈에, 그리고 마음에 밟히는 아이 하나가 생겨버렸다. 안녕이라는 마지막 인사를 못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아이가 그만큼이나 좋아져 버린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고 싶었고 벌써부터 그리웠다. 활동 기간 중에는 내 맘대로 아이를 보러 갈 수 없으니, 휴가를 받으면 그때 보러 가야지 하고 몇 달을 참았다. 그리고 이번 휴가 때 짬을 내어 그 아이를 보러 까마티푸라로 혼자 향했다. 날이 더우니 발와디 아이들 전부와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어야지, 하고 새 돈까지 넉넉히 챙겨서 갔다. 결과부터 말하면 그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 발와디는 방학 중이었고 그 바로 옆 D.C.C.에 계신 선생님은 그 아이가 어디에 사는지, 아니 그 아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계셨다. 아이들은 이미 발와디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넘어 간다고도 하셨다. 아마도 만날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덧붙이셨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이 힘들었다. 그냥 그 아이가 지난 몇 달 동안 어떻게 얼마나 자라났을지, 지금도 그 때처럼 예쁘게 웃고 잘 지내고 있는지 그거 하나 보러 간 건데 앞으로도 아마 영영 볼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냥 진이 빠져버렸다. 대신 D.C.C. 아이들과 함께 놀다 왔다. 그 허탈함을 잊을 만큼 정말 즐거웠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다시 미련이 부풀어 올랐다. 왜 그 동안 시간—어쩌면 용기—내서 아이를 보러 가지 않았을까. 지금이 아마 평생 그 아이와 내가 물리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날일 텐데, 그럼에도 나는 아이를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 기분이 이상해졌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감정의 밑바닥을 보고만 기분이었다. 모르겠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아직도 보고 싶다. 뭘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저 보고 싶다. 이런 종류의 감정은 보통 날이 갈수록 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먹고 자라나는 것이니 앞으로도 후회하겠지. 미련이 남겠지. 뭐라 말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슬프다는 말이 가장 가까울 것 같다.

#정전

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 순간 불이 나가버린 밤이 있었다. 불만 나가버려서 그저 암흑 속의 하루를 보내게 되어 버렸을 뿐이라면 괜찮았겠지만, 불이 나가면서 동시에 천정에 매달린 선풍기도 꺼져버렸다. 잠을 자려다가 너무 더워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차가운 물로 샤워를 했다.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샤워를 한 것이 무색하리만큼, 잠은 오지 않고 계속해서 더위만 느껴졌다. 결국엔 옥상에 올라가 자기로 마음 먹고 담요 한 장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바람이 부는 것이 느껴지니 그제야 겨우 살 만 했다. 금세 잠들었다. 내가 누워 본 그 어떤 침대보다 넓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기분이었다. 그러다 얼마 못 가 잠에서 깼다. 분명 늦은 밤인 것 같은데 비행기가 뜨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고, 눈에 비치는 거리는 가로등에서 쏟아져 나오는 불빛과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뒤섞여 온통 주홍 빛이었다. 닭이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는 것이 아니라, 저 비행기 소리에 잠에서 깨는구나. 달이 밝게 비추는 곳이 아니라, 그 달보다도 훨씬 더 밝게 빛나는 자동차 헤드라이트로 둘러 쌓인 곳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괜히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다시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그 와중에 겨우 한 줌이 될까 말까 하는 별들이 띄엄띄엄 흩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내가 가늠하기도 힘들만큼 먼 곳에서, 그리고 그 거리만큼 먼 과거에서 빛을 보내고 있을 별들이 있었다. 이 밝은 도시에까지 힘내어 빛을 보내주고 있는 별들이 대견했다. 이런저런 생각이 한참이나 머릿속을 돌아 다니다가, 나도 모르는 새 잠이 다시 들었다. 정말이지 단 잠이었다.

아자드의 이야기

#다음

아이들이 “이제 라온아띠 안 온다며?” 하고 물어 온다. “응.”하고 소리 줄여 대답하면, “왜?” 하는 질문이 따라 붙는다. 말문이 턱 막힌다. “나도 잘 모르겠다.” 하며 짐짓 얼버무려 본다. 사실 이곳 뭄바이에 다음 기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중간평가 이전에 들었으니 나름 시간이 흐를 만큼 흐른 것 같다. 준비는 그 때부터면 충분하다고 느낄 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아쉬움이 이상하게 점점 더 커져간다. 처음에는 그렇구나, 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정말이지 많이 아쉽다. 다음 기수가 있다면 인수인계 때 말해주고 싶은 것들이 꽤나 많았다. 주절주절 이런저런 말들을 풀어 놓고, 대신 나는 그들이 다달이 써낼 월간 보고서를 훔쳐 읽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럼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지. 누구는 키가 얼마나 더 자랐는지, 누구는 아직도 장난기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훔쳐 보고, 기회가 닿는다면 그들을 통해 아이들의 안부를 직접 물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여유가 된다면 보고 싶은 아이들 사진 몇 장쯤 부탁해 볼 수도 있겠지. 그런 욕심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냥 와르르 무너졌다. 아, 어쩌면 내가 보고 있는 지금 이 모습들이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내가 볼 수 있는 아이들 모습의 마지막 버전일 수도 있겠구나. 더 이상 업데이트 되지 않고 여기서 멈춰 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맴돈다. 우선은 아이들의 모습을 받아 볼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 그리고도 그냥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머리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어른들의 사정 같은 것들이 많다. 왜 여기엔 더 이상의 라온아띠가 오지 않을까. 여기 아이들이 힘주어 말하듯, 2020년 쯤 되면 인도는 정말 엄청난 나라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사실 지금도 엄청난 나라인 것 같은데. 기업의 입장에서도 인도라는 나라는 정말 매력적인 나라-혹은 시장-일 텐데. 왜 지금껏 잘 이루어 놓은 것들을 이제 와서 포기하려 하는 걸까. 혹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해서 정말 무엇인가를 이루어 냈다면, 그렇다면 이 결정이 되돌려 졌을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아 뭄바이라는 사이트가 빠져 버리게 된 걸까. 아닌 걸 알면서도 자꾸 미련 같은 것이 생겨난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그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도, 또 막상 무언가를 하려 하면 우리는 마지막 기수인데 일 벌이지 말고 그냥 하던 일 정리를 하다 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멈칫멈칫 하곤 한다. 어렵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자꾸 더 보고 싶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든다. 마음 같아서는 내가 너 보러 꼭 다시 올게, 하고 약속해 버리고 싶은데 나는 돌아가면 4학년이고, 졸업하면 아마도 취업을 할 거고, 취업하면 인도에 올 만큼 긴 휴가를 낼 수 있을지, 아니 사실 취업을 할 수는 있을지 그마저도 잘 모르겠다. 아무튼 이런 저런 생각들 때문에 말 한 마디를 쉽게 뱉어버릴 수가 없다. 우리가 돌아가고 나면 아이들은 우리를 곧 잊어버릴까, 아니 어쩌면 나도 아이들을 곧 잊어버리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래도 아쉽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일기를 다시 펴보니, 보이즈홈 활동을 다시 시작한 후 행복하다는 이야기가 한참이나 이어졌다. 그래, 그냥 행복하다. 아이들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 얼굴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만으로도 괜히 좋다. 그냥 아이들이랑 침대에 누워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하고 또 몸을 부대끼며 장난치고,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 뭐 물론 가끔 힘들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좋다. 마지막을 걱정하며 시작하는 사람이라 지금 이 생활의 마지막이 어떨지 살짝 걱정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아직까지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면 마냥 즐겁다. 마냥 이라는 말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다니. 새삼 놀랍다. 부디 이 행복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

디파의 이야기

"너무 행복하다!"

손톱에 예쁘게 물들여놓은 멘디(봉숭아 같은 것)가 벌써 반이나 사라졌다는 것은

인도에서의 생활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그렇다. 고작 한 달 남았다.

이번 달은 유독 감정이 일렁였다.

화가 날 때도, 소스라치게 기쁠 때도, 지루할 때도, 즐거울 때도,

서운할 때도, 또 눈물나게 고마울 때도 있었다.

이 일렁인 감정들 모두가 나의 인도생활을 더욱 진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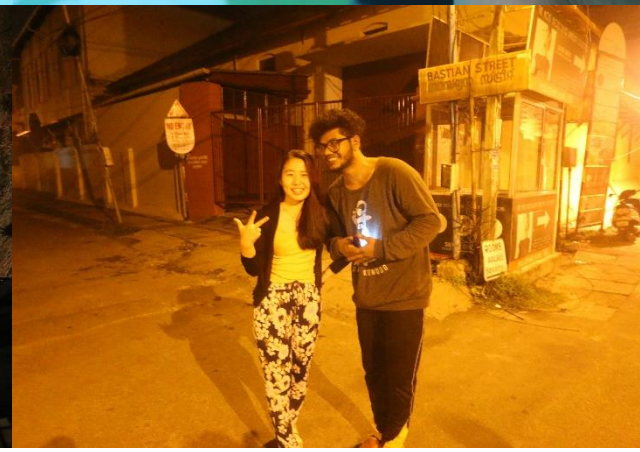
그래서인지 '너무'라는 말은 부정의 뜻을 가진 단어 앞에 써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요즈음에 나는 일기장에 자꾸 '너무 행복하다'라는 말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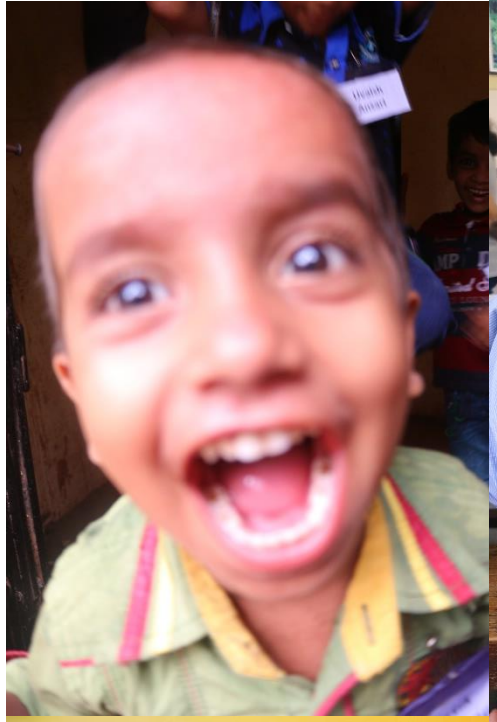
(뭐랄까 뭔가 정말, 진짜, 많이라는 단어는 나의 행복함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달까…?)

더 보고 싶을걸?

심장폭행 귀요미들
벌받는 귀요미들

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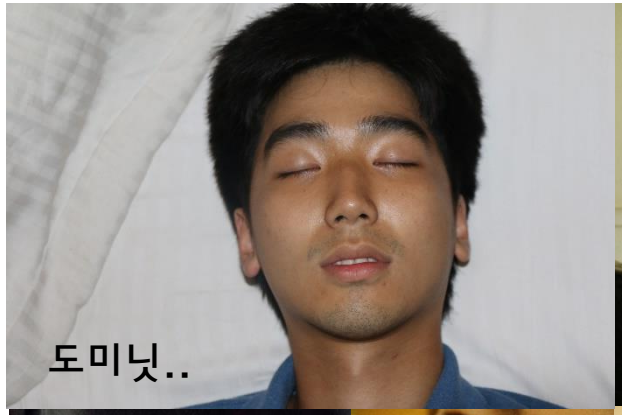
꺄핳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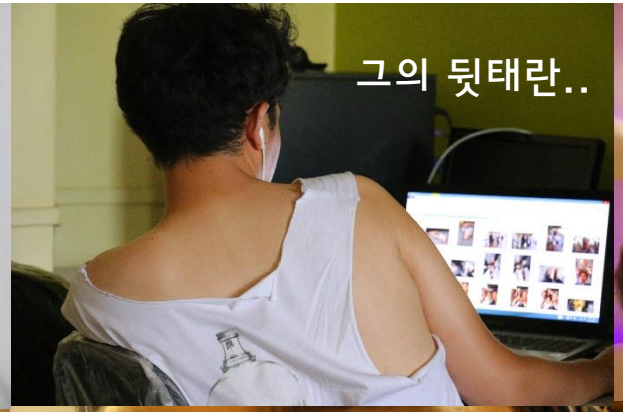
어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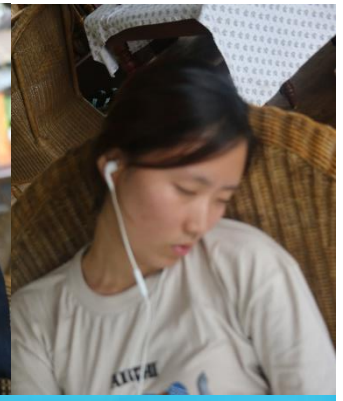
디디, 빨리 찍어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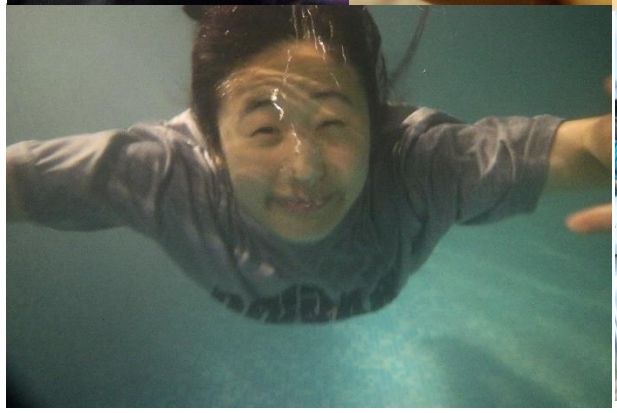
P.K
Dine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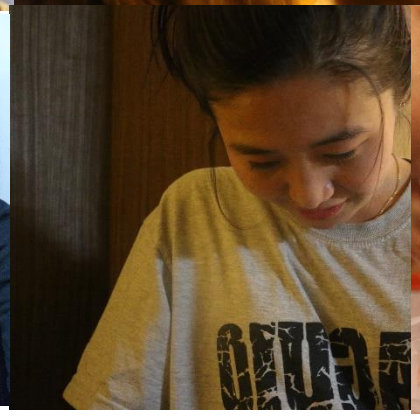
마지막 페이지 까지 오셨으니, 큰 선물 드리겠습니다.
사앗사앗팀의 엽사 모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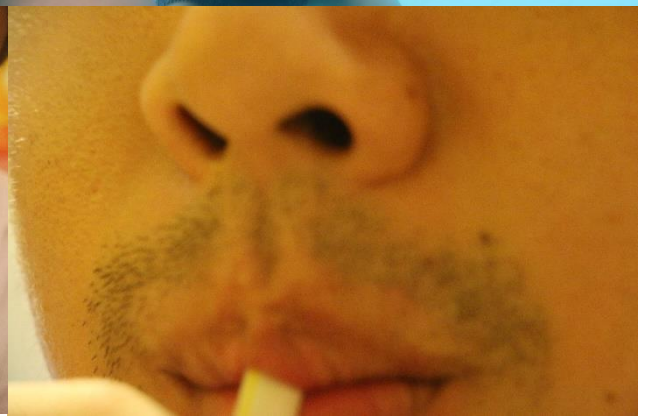












끝

FIR MILLENGE